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 내것은 내 힘으로 ~

〈행정개혁조사
위원회 부위원장〉

문 회 석

1. 머리말

나는 어려서부터 牧師님의 직책과 간호원의 직책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他人)의 다리역할도 하고 마음의 역할도 하고 또 정신적인 불구자나 육체적인 불구자의 기증 노릇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며 홀로 남(他人)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환자들을 보살펴 주시는飄々로운 봉사에 一生을 바치고 못사람의 心琴을 울리는 事業에 餘念이 없는 분들에게 저같이 戰略에 對한 權謀術數를 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린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우기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라는 題目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資格이 없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꼭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 正當性을 갖는다던 이런 單

語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代身한다」라는 말입니다.

結婚式이나 歡迎會 같은데서 祝辭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두분의 結婚을 祝賀합니다」「이와같이 衷心으로 歡迎합니다」하면 더할 말이 없을 텐데 實은 「富貴多男하소서」「이 社會의 模範되는 家庭을 이루소서」하는 말이나 또는 「遠路에 이와같이 來臨하셨으니 더욱 이자리를 빛내주셨을니다」「우리를 格外히 지도전달하소서」하면 祝辭나 歡迎辭하고는 全然 關係없는 自己말을 해놓고 끝으로 祝辭에 代身합니다 또는 歡迎辭에 代身하는 바입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오늘은 不得已 演題하고는 거의 關係없는 몇가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서 「代身한다」는 말로서 한時間의 任務를 다치고자 합니다.

2. 宗教—基督敎의 이야기

基督敎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우리의 精神生活의 一面을 살피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신도 하나다, 이런 點에서 基督敎에 어떤 類型이나 Pattern이 있을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같은 長老敎도 나라나 民族에 따라서 많은 差異가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같아야 할 敎會의 禮拜姿態나 그 느낌이 현저하게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나, 다른 교파에서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내가 다녀본 몇 나라의 境遇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美國〉 나는 美國에서 一年있는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美國人敎會에 出席해 보았습니다. 내가본 노점은 다른 나라 敎會와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같이 땅에서드 이루어지이다. 이땅에 天國을 만들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孤兒나 不遇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하는베 많은 力點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來世보다는 現實에 天國을 建設하자. 내가 그러기 爲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追求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現實에 天國을 이룩하는 한 例로서의 秋收感謝節은 所重합니다. 美國의 New Frontier 精神, 開拓精神 即 建國精神의 根源이 여기에 있는

것같이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自身에 關하여는 말이 적고 내가 남을 爲하여 무엇을 해야만 天國이 되겠는가를 追求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이 술 담배를 먹든지 춤을 추든지



〈문 회 석〉 무엇을 하든지 關心이 아주 稀薄합니다. I am going to my way with our God for others! 라고 할까요.

美國의 建設은 淸敎徒들의 祈禱와 하느님의 恩寵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日本〉 나는 日本에서 三年間 日本人敎會를 다녀보고 다음과 같은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너희는 世上에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누가 소금이라 하리오.」 「너희는 世上에 빛이다.」 「빛을 사람앞에 나타내라. 만일 너희가 좋은 것을 남에게 나타낼 때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榮光을 돌리리라.」 「萬軍의 主여호와와」 「나의 競가 學者나 마르세 敎人보다 낫지 못하면 天堂에 못가느니라.」 나는 敎會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精神界의 指導者이다. 목사님은 精神界의 「大名」이라 할까. 예수는 精神界의 天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學生일

때는 그는 學校에서 一等을 해야 한다. 職場에서는 일 잘하는 模範社員이 되어야 한다. 收師는 佛敎, 儒敎 등 다른 宗敎뿐 아니라 各種科學學問에 造詣가 깊어야 하며 語學에도 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이 社會의 指導者가 될 수도 없거니와 이 世上에 빛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信仰만 있으면 된다 하여 다른 學問이나 科學을 無視하고 다른 宗敎에 無關心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된 것은 畢竟 日本에 基督敎가 처음 傳播될 때 上流武士階級에서 始作한 것이 原因인 것 같습니다. 敎會에서 자주 들던 이야기는 一等을 해야 된다, 最高模範軍人이 되어야 한다, 指導者가 되어야 한다, 工夫를 熱心히 하여 聖經을 學問的으로 信仰的으로 研究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지 않으면 天堂에는 못간다는 것입니다.」

<韓國> 우리나라 禮拜堂에서 禮拜를 볼 때 느껴지는 것은 「敎하라,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발견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은 열릴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과 악마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에 重點이 있는 느낌입니다. 많은 祈禱 속에서 「恩寵을 달라, 은혜를 베프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하는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무엇이고 달라 하고, 敎하는 面에

서 基督敎의 指導者의 性格이 매우 적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基督敎는 초창기에 不遇한 處地에 있던 階級에 전파되었고 비교적 兩班階級 보다는 常民이나 不遇한 계급사람에게 더 호응을 받은 탓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특히 日本의 압제 밑에서 36年間은 나를 敎해 주소서, 나에게 恩寵을 베프소서 하고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孤兒 出身이나 가난한 家庭出身 또는 自力으로 神學工夫를 못하고 宣敎師 德澤에 敎師가 되는 境遇, 다른 좋은 學校에는 知識的인 能力不足, 金錢的인 能力不足을 느끼면서 겨우 시험없는 神學을 해가지고 敎師가 되었다면 필경 信仰이 제일이다. 하느님만 믿으면 救援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科學이나 學問・甚至於는 他宗敎, 다른 敎派도 無視해 버리고 敎理도 所用 없다는 說敎까지도 들게될 때 부득이 하다고 생각됩니다. 外國宣敎師면 絶對視하고 美國사람이면 모두 훌륭하다는 式의 信徒들, 神學工夫를 하지 않는 長老들, 그들이 試驗볼 때 「컨닝」도 한다는 이야기, 敎師任들이 信仰만 第一이다 하여 說敎하다 「말고, 노래나 하는 境遇, 바탕이 不完全한 者가 宣敎師에 救助되어 神學校를 나와 敎師가 되면 칼을 가지고도 다니고, 普邇사람도 하지 않는 협잡도 하고, 非道德的인 것을 하는 것도 볼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수 있습니다.

우리 教會에서 남의 惡을 책망하는 것을 많이 보지만 스스로 指導者가 되려는 精神은 거의 없는 것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敎派간의 수많은 싸움, 教會 內部에서의 갈등, 基督教이 크게 無視當하는 原因은 우리의 教會나 個人의 所謂 信仰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精神姿勢는 基督教의 本보기 속에서 해야 할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우기 變해왔고 變해져가는 우리 社會에 淸定立해 놓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南北으로 갈라지고 社會의 모든 分裂相을 統一, 統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새삼 느껴지는 것은 「몸이 하나요, 성신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信仰도 하나요, 洗禮도 하나요, 하느님도 하나이시니 곧 萬有의 아버지 시라」(고린도 前 12章, 로마서 15章) 分裂과 싸움과 남의 中傷에 餘念이 없는 우리 教會는 理由 餘하를 막론하고 지정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長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린

도前書 13章 12節)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서서 걸어 갈 수 있는 時期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外國의 援助가 있어야만 우리 教會가 維持되고 宣敎師가 每事에 審判官이 되도록 되어야 하며 우리의 神學者는 남의 敎理나 理論에만 追從해야만 되겠습니까? 一般 社會의 事大主義를 비난하기 前에 基督教의 事大主義를 깨닫기 도려내야 하겠습니다. 自主國防, 自立經濟 以前에 基督教의 自主精神 自立精神이 社會에서 具顯하지 못하면 우리의 基督教은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社會 特히 政界의 分裂과 派閥싸움에 지극히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民主主義는 分裂 分派의 파벌싸움을 正常化시키는 役割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協調와 大同團結이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基督教은 우리 社會의 이러한 惡風의 앞장을 서지 않았는지 佛教 亦是 그러하지 않았는지 도리어 우리나라 宗教는 國民을 옳은 方向으로 引導하기는 커녕 分裂, 파벌싸움으로 그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이 根源을 찾아보면 宗教의 職責을 가진 者들의 私利私慾에서 나온 結果라고 指摘할 수도 있겠습니다. 平信徒들에게서는 派閥싸움을 그렇게 볼 수 없고 도리어 牧師, 長老, 執事等 職分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말성

의 原因이고, 信仰만 있으면 된다는 思考방식은 神學工夫도 않고 나가서 聖經研究도 하지 않는데에 그 原因이 있는 것 같습니다.

敎職者를 爲한 學問的訓練이 所重하다. 自己의 信仰을 維持하기 爲하여 排他的인 精神이 必要的인 것은 不遇한 處地에서, 壓制받는 處地에서 敎師의 指導 밑에서는 必要할 런지 모르지만 獨立國家의 한 사람으로서 는 있을 수 없니은다. 남의 信仰, 남의 宗教는 所重한 것이고 도리어 이웃과의 對話의 廣場이 必要합니다. 이웃과 信仰의 差異가 있는것을 認定 못하는 者는 敎會에서 職分을 가져서는 안될는지도 모릅니다. 信仰은 固執이 아니며, 宗教는 獨善이 아닙니다. 國民生活에 協力하고 協助하는 精神을 제공하지 못하는 宗教人은 自滅해도 할 수 없습니다.

3. 國防—내 스스로 지키는 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平和를 항상 갈망합니다. 그러나 人類는 戰爭을 繼續해 왔습니다. 統計的으로 計算을 해 보니까 人類는 歷史의 100日中에서 93日을 戰爭을 해왔고 나머지 7日도 다음 전쟁 준비를 해 왔습니다. 第二次大戰後만도 42回의 전쟁 또는 분규를 해왔습니다. 1年에 2回의 戰爭을 한 셈이 됩니다. 우

리 歷史를 보아도 36年동안 日人들에 依하여 獨立을 잃은 것 같이 알고 있지만 그 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歷史가 日本族이나 中國族에 依하여 獨立을 喪失하여 왔습니다. 獨立을 維持하기란 큰 代價가 必要합니다. 우리가 完強한 武裝軍을 維持하고 士氣를 잃지 않게 하고, 國民이 全力을 기울여 그 뒷받침을 할 때 겨우 우리의 獨立이 維持되었던 것입니다. 國民이 全心 全力 國防에 最善의 努力을 하지 않으면 獨立과 生存은 어렵다는 것을 歷史는 잘 證明해 주고 있습니다.

六·二五直前에 以北에서 共產軍이 武力侵略을 해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때 軍部에서 는 鐵條網을 前方에 架設해서 敵이 쉽게 38線 突破를 못하도록 하자고 國會에 豫算을 要求했습니다. 그러나 國會에서는 全額을 削減해 버렸습니다. 그 危機를 느낀 軍部는 重要한 地點에 몇개의 「토치카」라도 만들겠다고 세컨트購入을 爲한 豫算申請을 했습니다. 그 때도 國會에서는 많은 軍隊와 警察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施設을 해서 무엇하느냐고 全額削減하고 말았습니다. 그 後 얼마 가지 않아서 共產軍은 大邱南侵을 하였고 三日만에 서울이 陷落되고 全國民이 三年一個月 동안이나 流浪의 生活을 해야 했고 100만명의 人名被害와 23億弗의 財產損害를 보아야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했던=것입니다.

多幸이 UN軍의 直刻的인 介入으로 우리의 獨立이 輕안간에 겨우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後 美國은 우리를 繼續 도와 주었습니다.

1965年에 우리는 越南에 우리의 軍隊를 보내서 그 當時의 報答의 一部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의 作戰은 우리의 安全保障에도 크게 寄與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再昨年부터 金日成 徒黨은 道日 武裝共匪를 國內에 投入시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韓國에 第二戰線形成을 試圖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各種武器를 自家生産하고 全國을 要塞化하고 모든 軍事施設과 軍需生産施設을 地下化하여 一般住民의 被害를 防止시키기 爲해 數 많은 防空壕를 만들고 國防費도 最高로 많이 策定하여 戰爭準備를 하고 있습니다. 1960年부터 40萬正規軍外에 120萬의 赤衛隊를 編成訓練하고 15,000名의 南侵特殊部隊, 2,400名의 特攻武裝共匪를 養成하고 있습니다. 隣境 北韓住民들을 가장 困境에 빠뜨리면서 最大의 武裝을 強化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目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소聯이나 中共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屠殺하려는데 精力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對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軍事作戰權은 UN軍司令官

에게 있어 必要할 때 우리 맘대로 하기 어려운 位置이기도 합니다. 裝備武器의 重要한 것은 대개가 美國의 것을 援助받고 있습니다. 國防費는 우리 豫算의 많은 部分을 차지하지만 이것도 많은 部分이 間接적으로 美國의 援助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訓練도 새로운 것은 大部分을 美國에서 시켜주고 많은 顧問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兵力만 우리가 充當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人力資源이 以北과 比較해서 넉넉하기 때문에 多幸입니다.

國防의 五大要素中에서 四個部門은 美國이 많이 도와주고 兵力만 우리가 提供하는 實情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兵力의 問題를 조금 살펴봅시다. 우리는 忌避者라는 말과 逃亡兵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數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그 數를 밝힐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지만 우리 獨立을 維持하는데 이러한 用語가 혼이 썩지는 것을 볼 때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더우기 者들이 들들이나 매운자 속에 더 많다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常 남에게 依存해서 내것을 지켜야만 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우리 것이 不足하니 不得已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努力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美國이나 또는 이웃나라들과 紐帶를 強化하고 國際問題에서 우리의 利益을 追求하는데 조금도 뒤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國防問題에 더 많은 우리의 努力이 要求된다고 생각합니다. 質과 量이 모자라도 우리의 武器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것이 어려우면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越南戰爭에서 베트남들이 美國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볼때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스스로 被害를 입고 반드시 좋은 武器는 아니지만 끈기있게 지탱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러한 忍耐과 精神力이 더 기뵙니다.

本來 共產主義者들은 唯物論을 앞세우는데도 그 精神的인 努力에는 소홀이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反面 우리는 精神面을 置重하면서 너무나 粗忽하지 않은가 합니다. 1970年 後半期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失地回復을 해야 할텐데 現在와 같은 우리의 姿勢로서 되겠는가 느껴집니다.

武器장비等 自家生産에 우리의 努力을 強化해야 되고 他國에 依存하는 마음을 漸次 주려서 獨立維持精神을 確乎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自立 自主精神과 더불어

相互國民間的 協助 統一하는 마음이 所重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壬辰倭亂直前に 日本에 使臣으로 보냈던 두 사람이 하나는 日本이 곧 侵略하리라고 報告했는데 다른 하나는 侵略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 報告했다는 事實을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두 사람이 派閥間에 對立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約 一個月前 放送局에서 T.V.會見을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지만 政黨이 다르니까 全然 常識에도 맞지 않는 反對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壬辰倭亂前의 使臣의 이야기와 六·二五直前의 國會議員들의 反對를 爲한 反對의 論理가 生覺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維持하는 問題에 只今도 政治한다는 사람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껴었습니다. 그러나 不得已 뜻있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努力을 하자면 李舜臣의 白衣從軍이나 그 스스로의 犧牲이 必要해 진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떤 犧牲없이 나라의 自主獨立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國民이 協助를 못하고 뜻을 같이 모으지 못함으로 因하여 생기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프기만 합니다.

오늘날 民主主義·自由主義를 指向해 나가는 國家에서 가장 소중한게 國民에게 理解시키고 實踐해 나가도록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國民間에 서로 協助할 것, 모든

分野에서 相對方과 잘 協助할 것입니다. 다음은 法律과 規定을 지키게 하고 나아가서 Leadership을 길러 주는 일입니다. 協助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國家는 危機에 直面하게. 마련이고 民主主義와 自由를 享有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4. 教育——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約1個月前에 내 親舊가 자기 딸이 道德時間에 가서 할 準備事項을 說明하면서 격한 語調로 지금의 國民教育의 盲點을 이야기하였습니다. 內容인즉 하루는 自己가 官廳에서 退勤을 한 즉 棠國民學校 4年生 막내딸하고 그 親舊 4名이 앉아서 「틀렸다」 「맞았다」하면서 손드는 練習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주먹을 드는 수도 있고 손바닥을 펴서 드는 때도 있었답니다. 다음날 道德時間에 文敎部에서 模範教授視察로 獎學奩이 나오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途中 先生任이 質問을 하면 모르던 알던 全部 손을 들어라. 다만 모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손을 펴서 들어야 한다. 그러면 先生任은 주먹든 사람만 지적하면 되니 틀림없이 하라는 선생님의 分부를 받고 돌아 와서 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道德獎學教育을 이와같이 했으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三月의 이야기입니다. 내 막내딸이 4學年生인데 하루는 學校에서 돌아와서 몹시 골이 난 語調로 그날 自己반 級長선거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擔任先生이 級長選舉를 한다고 해서 내딸도 몇사람 男學生과 같이 出馬를 했답니다. 투표결과 내딸이 最高得點이고 둘째아이가 男子인데 20票나 적었답니다. 投票가 끝이 난 다음 級長은 男子에게 시킨다고 擔任先生任은 새로 宣言하고 自己는 最高得點을 했는데 副班長으로 되었다고 몹시나 서운해 하면서 先生任에 對한 不信感이 大端했읍니다.

이거와 비슷한 일은 내가 鎭海에 있을 때도 있어서 나는 아들한테 몹시 부끄럽게 구차한 변명을 했으나 끝내 理解를 얻는 것을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大學에서 時間을 맡아서 몇번 講義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은 講義時間에 “strike”라는 말을 20回 가량이나 使用했는데 時間이 끝난 다음 어느 學生이 質問을 하는데 「先生任 strike라는 말을 여러번 하셨는데 스펠을 어떻게 씁니까」하는 바람에 필판에 그것을 써 주면서 大學 3年生이 이 程度며는 어떻게 하나? 하고 느꼈읍니다.

1961年度에 國家學士考試를 해 보았는데 4年 工夫한 것을 試驗치도

특했습니다. 問題도 共通된 쉬운 問題를 選擇하고 客觀式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成績이 나쁜 것 이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不得已 「칼트라인」을 훨씬 내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學生들이 演壇이나 或은 테도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感嘆할 程度로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國民學校에서는 우리에게 꼭 必要한 것을 배워 주기를 바랍니다. 주먹을 쥔다 쥐었다 하는 어러운 道德보다는 交通道德부터 배워 주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先生任이나 牧師任은 참 하기 어려운 職業같아요. 자기 좋은 아이를 억지로 級長시키려는 態度에서는 教育은 잘 될 수 없으며, 大學의 境遇도 大學生은 來日의 일꾼이지 오늘 의 일꾼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民族의 生存을 짓밟고 말살하려던 日帝時代 같으면 털어 놓고 反抗도 理由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條件이 달라졌는데 제할 工夫는 말도 아니게 하면서 社會參與니 테모니 選舉니하고 쫓아다니는 學生을 보면 무엇인지 이해서 되겠는가? 하고 느껴집니다.

學園은 틀림없이 來日의 일꾼을 기르는 곳인데 여기에 從事하는 聖職者然하는 사람들은 萬分의—이라도 聖職者노릇을 해주기 바라는 마

음이 간절합니다.

5. 結 論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宗教・國防・教育分野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結論삼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가끔 自動車를 타고 길을 가느라 면 陸橋길을 점잖은 紳士나 淑女가 徒步로 橫斷합니다. 그뒤를 아들 딸이 뛰어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 紳士 淑女는 生命을 걸고 法과 規定을 지키지 않는데 스틸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몇年前하고 달라서 陸橋가 생기고, 地下道가 생겼으니 그것을 利用해야 할텐데 알만한 사람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法과 規定을 國民大衆이 지키지 않을 때 우리 社會는 發展을 期待할 수도 없고 많은 犧牲을 내게 마련입니다. 民主主義와 自由도 法秩序를 지키는데 비로소 可能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法과 規定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남에 關하여 사랑한다, 法을 지키라 한다면 마치 뒤문은개가 겨뿔은개를 나돌한다는 격이 되겠습니다.

學校에서 예수교信者나 佛教信者라고 自處하는 學生들이 成績이 나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쁘고 끝에서 가까운 것을 보면 늘 우스운 生覺이 납니다.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榮光을 알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學生이 別試驗도 없이 神學校에 가서 別成績도 내지 못하고 牧師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說教를 할까요. 勿論 信仰이 第一이요 知識이 무슨 所用이나 하겠지만 說教하다 노래도 하겠지요.

여기에 따라가는 純眞한 信徒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社會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리를 할 수 있고 信徒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時代는 어제와는 많이 變해 있습니다. 牧師가 이렇게 넘어갈 時代는 아닙니다. 나는 往往히 長老나 執事라는 사람들이 술담배는 안먹지만 不信徒도 敢히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派閥을 만들어 牧師를 내쫓는 것을 예사로 삼는가 하면 不信徒들의 정성어린 獻金을 가로챈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도 하느님의 사업이라는 名稱을 부쳐서! 항차 치고 받고 예배방해를 하면서 싸우는 職分 가진 者들을 볼 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들은 神殿에서 장사꾼 내쫓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生覺할게니 걱정입니다.

비록 職分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이 지키는 最少限度的 法과 規定이나 道德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教會에서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우스운 노

릇입니다. 남(他人)보고 世上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고 自己는 나쁜 것만 해도 許容되지 않는 듯 합니다.

나는 最近 假面舞 卽 말춤을 求景 했는데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信者의 말을 쓰고 있지만 民主主義의 말을 쓴 先生任 學生의 말을 쓴 早熟한 兒童, 牧師의 말을 쓴 사람, 長老의 말을 쓴 사람 우리는 제가 해야 할 일 爲先 法과 規定을 지키는 일부터 始作해야 우리 變하는 社會에 適應될 것 같습니다.

法을 지키고 있는 것은 損害보는 것 같지만 돈을 번다 하여 法과 規定을 안지킨다면 鐵窓生活을 먼저 해야 하겠지요. 남은 지키건 안지키건 우선 나부터 始作해야겠습니다.

내나라 것, 내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입니다. 내가 必要한 것은 내가 만들어 쓰고 그러기 爲하여는 힘들어도 해야겠습니다. 이제 時代는 많이 變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것에 依存했지만 지금부터는 나에게 依存해야 됩니다.

남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砂上樓閣이니, 宣教師가 도와주어야만 教會가 되고 孤兒園이 된다는 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6·25 때 이야기며 이것 때문에 우리 社會에 얼마나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준 사람의 本意와는 달리 받은 사람

들이 나쁜 것 한것이 얼마나 많고 그 影響은 얼마나 컸습니까?

美國의 援助가 있어야 國防을 한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의 것을 最大限度로 어려워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月 21日 事件 때 美國側은 등한히 했었으나 23日 事件때는 大端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國防問題를 우리가 더 많이 贊助했던들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以北 共產黨도 많이 武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인들 왜 못만듭니까. 技術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우리의 國防意識입니다. 좀 더 우리는 利益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美國의 經濟援助가 있어야 復興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稅金을 가지고 復興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過去에 우리 稅金으로 別로 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稅金내기가 어렵진 하지만 우리 稅金으로 많은 建設이 되고 있으니 고마운 일인것 같습니다. 내것은 내 稅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外國의 技術援助가 있어야 生産이 되는 時機도 지난 것 같습니다. 伊太利사람이 우리 양복지를 이태리제품이라고 우리나라 主婦들에게 팔아 먹었다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國民은 技術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政府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힘을

開發하면 그 어느 나라의 能力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援助받던 더러운 習性때문에 지금도 안되는 것은 政府탓을 하고 援助 補助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하나 可笑로운 것은 學者들이 外國사람의 學說을 引用하다가 제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짓을 볼 수 있습니다. 美國것 英國것은 잘 아는 척하면서 제것은 모르고 있는게는 딱합니다. 함차 外國學者가 한 것을 거의 無條件 좋다고 따르면서도 韓國學者가 좋다고 하는 예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外國學者가 韓國學者의 業績을 칭찬하는 예는 많은 것 같습니다.

歷史는 精神的인 强者, 이것을 所重히 아는 者에게 勝利를 주었습니다. 남의 것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者나 國家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自己의 精神的인 姿勢를 確立했을 때 남의 것 좋은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漸次 富가 形成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는 精神的인 定立과 覺悟가 必要한 것을 느낍니다. 今年度初에 大統領閣下께서 말씀하신 第二經濟라는 말씀은 이러한 變해가는 時代에 우리가 그 精神的인 어떤 確乎한 姿勢가 必要한 것을 強調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먼저도 一言했습니다만 協調라는 것을 다시 強調하겠습니다. 過去 宗彝臣將軍이 倭賊을 물리치실 때 神

〈變하는 社會와 우리의 姿勢〉

出處沒하는 作戰을 했고 모든 氣象, 地形, 狀況判斷을 할 때 한번도 失敗없이 잘한 將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日記와 그분에 關한 書誌를 읽고 至極이 보통 사람이고 보통 將軍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가지 남보다 잘한 것은 協調를 잘했다는 事實입니다. 그가 作戰하기 前에는 參謀들을 全部 모았습니다. 大概 一週日 程度의 鳩首參謀會議에서 많은 사람의 各種意圖를 充分이 들었습니다. 說明을 듣고서도 不確實하면 제각기 現지에 가서 살펴보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決定을 지었습니다. 決定을 지은 後에도 세번 變년 그런 狀態에서 參謀들과 같이 練習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敵을 맞아 싸우는 데 틀림이 없었습니다. 南海水域에서 싸울 때는 魚泳潭이라는 參謀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潮水와 달에 關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 過去 漁夫로서 바다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韓國動亂때의 戰史를 보면 많은 協調를 한 指揮官들은 失敗를 않고 成功을 했습니다. 反對로 自己 재주만을 믿고 作戰을 한 사람은 失敗가 많았습니다. 協調로서 衆知를 모아 나의 生活을 富요하게 하고 나라의 獨立을 維持해야 하겠습니다. 反對를 爲한 反對를 하는 사람들은 困難합니다. 서로가 國家利益을 爲하여 創意성을 發揮하고 그 위에 協調를 해야 합니다. 서로 協調를 잘 하는 國군은 잘 發長했습니다. 그 例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挑釁을 爲하여 꼭 서로 아낌없는 協調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時間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쯤서 「代身한다」는 말을 쓰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어린 기부금◆

서독에 나가 있는 본협회원 이애들씨가 지난 6월 11일 50마르크를 보내 왔다.

서독에서도 이름난 휴양지인 Sanerland의 한 가톨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애들씨는 몸은 비록 멀리 이국에 와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한국에 남아 있으며 대한간

호협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0마르크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이 정성어린 기부금을 장학기금에 넣어 앞으로 간호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인재를 기르는데 보태 쓰기로 했다.